



**Built to Lead**

즉시 배포용: 2016년 7월 21일

**ANDREW M. CUOMO** 주지사

**CUOMO** 주지사가 모든 공무원에게 전립선암 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

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공무원에게 전립선암 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.

이 법안(S.8107/A.409-B)은 전립선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최대 4시간까지의 유급 휴가를 규정합니다.

**Cuomo**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전립선암은 매년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그것의 종종 나타나는 파괴적 효과를 경감시키는 핵심은 조기 발견입니다. 저는 모든 공무원이 생명을 살리는 검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.”

현행 법률에서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,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이 휴가를 허용합니다.

이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에게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유급 휴가 시간을 허용하는 주지사의 2016년 유방암 보험 프로그램 법안의 요소를 반영합니다.

주 상원의원 **Kemp Hannon**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전립선암은 미국 남자들에서 2번째로 가장 흔한 암이고, 대략 7명 중 1명이 일생 동안 이 질병을 진단받게 되므로, 저는 해롭고도 잠재적으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남자 공무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고무됩니다. 조기 발견은 너무도 만연해 있는 이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입니다. 올해 초, **Cuomo** 주지사는 우리 주의 모든 공무원에게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허용되는 휴가를 연장하는 법률 규정에 서명했으며, 저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전립선암 검진을 위해서 허용되는 휴가 또한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게 될 이 중요한 법률에 서명한 것에 대해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.”

주 하원의원 **Jeffrey Dinowitz**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매년 뉴욕주에서 거의 15,000명의 남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며, 거의 1,700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합니다. 아주 단순히 말해서, 이 법률은 뉴욕시 공무원들에게 뉴욕주 공무원들과 평등한 처우를 제공하며, 잠재적으로 향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. 비록 우리가 암에 관해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, 의료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몇 가지 중 하나는 조기 발견이 보다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 법률이 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전립선

검진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기대하며, 아울러 뉴욕주 전역에 걸쳐 유행암 검진을 옹호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**Cuomo**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."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